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8월 23일 (금)

...(음력 7월 20일)...

Пятница

23 августа 2024 г.

№ 33 (1210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8월 22일은 러시아 국기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8월의 마지막 일요일은 광부의 날로 올해는 8월 25일에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맞아 사할린 지역 석탄산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에게 광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날은 직업상 용감하고, 강인한 특성을 지닌 광부, 터널공사 근로자, 폭파작업 전문가, 석탄 운반자, 지질학자, 기계기술자, 건설업자들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석탄 채굴은 우리 지역 주요 경제산업 부문의 하나입니다. 매일 사할린의 광부들은 산업과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며, 사할린 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생활은 광부들에게 상당히 의존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유치원, 병원이 밝고, 따뜻한 것은 우리의 광부들이 화력발전소와 보일러의 연료인 석탄을 채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정부는 석탄산업의 잠재력 향상을 목표로 투자기획들을 언제나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할린 광부 여러분의 헌신적인 근로와 전문성 그리고 공공주택사업의 대상들과 생산산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할린의 현대적인 석탄산업의 기반을 다져놓으신 원로 광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과 안전한 작업과 모든 일에 탄탄대로와 성공을 기원합니다!

광부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 사할린주 정부 -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수상스포츠센터 운영 개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월나' 수상스포츠센터 건설이 완공되었다, 사할린 지역의 새로운 수상스포츠 시설은 수영 종목, 수구, 싱크로나이즈 수영, 다이빙, 맞춤형 수영 등 세계적 수준의 경기 개최와 훈련 및 준비를 위한 완벽한 스포츠단지를 대표한다.

센터 건물에는 2개의 수영장이 갖추어져 첫째 50m의 수영장은 이동식 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둘째 25m수영장에는 다이빙 풀과 다이빙대가 설치되어 있다.

사할린주 스포츠부 아르쥔 포드쉬바로브 장관은 "월나' 수상스포츠 종목센터 건립은 우리 지역의 스포츠 발전을 향한 큰 진전이다. 우리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할 최대한 현대적인 스포츠 시설을 건설하려고 노력했다. 선수들을 위해 시설을 완비하고, 훈련 및 트램펄린, 안무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을 갖추었으며, 건설기획 설계에 예비과정의 선수들만 아니라 재기 과정의 선수들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이곳에는 의료적 재활센터도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이 수상스포츠센터는 가스프롬과 지역 간 사회적 제반시설 개발에 대한 협약의 일환으로 가스프롬 회사가 자금을 투자해 건설되었다. 현대적인 수상스포츠단지 건설은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의 주도로 이뤄졌다. 건설은 주지사의 개별적인 감독 아래 진행되었고, 주지사는 여러 번 건설현장을 찾아가 주민들과 지역 수상스포츠 종목의 발전을 위한 수상스포츠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센터에는 최신 스위스 타이밍 시스템과 생방송 진행을 위한 멀티미디어 장비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9월 6일부터 7일까지 대규모 시설을 개장하면서 마리아 키셀료와의 대대적인 수상 극장 쇼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세계적으로 이와 유사한 쇼프로그램은 없다. 쇼프로그램에는 싱크로나이즈 수영 스타 및 다이빙 스타, 무용단, 전문 배우들이 출연한다.

단신

주지사,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와 그의 동료들에 대한 추도식에 참석

21년 전, 사할린 주지사였던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와 그를 수반했던 정부 직원, 승무원 등 20명이 탑승한 비행기가 캄차트카에서 추락해 모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8월기념비에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비롯해 희생자들의 친지들, 지역 정부 및 주두마,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추념비에 헌화했다.

희생자에 대한 추도식은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의 대주교 니카노르가 집례했다.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 전 사할린 주지사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주지사직을 역임하며 사할린 지역 경제발전에 실제적인 기여를 했는데 그의 주요 업적 중 하나는 사할린 대륙붕개발로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석유 및 가스 생산의 대규모 기획이다.

<사할린 섬> 축제, 처음 사할린에서 개최

안톤 체호브 탄생 165주년을 맞아 '사할린 섬' 책 박물관이 8월23일부터 25일까지 처음으로 체호브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비롯해 아니와,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홈스크, 네웰스크 시와 시네고르스크 마을에서 열린다.

지역 각지의 유명 창작 활동가들이 방문객들에게 활동교실, 강연, 만남, 공연,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박물관과 도서관,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센터 부근에서는 도서 박람회도 열릴 예정이다.

사할린에 주택관리자 학교 설립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주택관리자> 포럼이 열린 가운데 주내 여러 지역에서 250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였다. 3시간에 걸친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주택관리의 현안과 매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사회행정직원들의 기본 자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주택관리자 학교 설립안을 채택하여 이 학교에서 활동가들은 공동주택과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개별적 문제들의 해결책을 위해 지식을 쌓고, 기술을 익히며, 필수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주택관리자인 사회 지도자들의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요소들이 포럼의 주요 주제였다.

이번 행사에 직접적인 주택관리자들을 비롯해 주택관리 회사 및 지역 행정부 대표들, 지역 주택공공사업부의 전문가들과 사회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새고려신문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한반도 해방 79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8월 17일 (토)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 공원 위치한 '코스모스'경기장에서 광복 79주년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전통적으로 매해 8월의 세번째 토요일에 광복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식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 박순옥) 측에서는 남부 사할린 해방을 위해 전사한 참전자들을 기리며 '슬라와(영광)'광장에 있는 성화에 헌화를 하였다.

정오 12시 열린 행사에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사할린주두마 엘레나 카시아노와 의장, 유즈노사할린스크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 주 및 시두마 의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참가했다. 행사는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북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다음 북 리듬에 맞추어 '토르나도클럽'과 '에진스트위(단결)'클럽 선수들의 태권도 시범이 펼쳐졌다.

이날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는 환영 연설을 통해 1945년 8월 한반도 해방이 사할린의 많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날이었음을 강조했다. 그 당시 오랫동안 일본의 점령 아래에 있던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었다.

"오늘 우리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한반도가 해방된 지 79주년을 기념합니다.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좀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도 해방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사할린 주의 현재의 국경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우리 공동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가 말했다.

또한 이날 주지사는 사할린 한인들의 책임감, 부지런함, 근면성을 높이 평가하며 사할린에는 유일한 한민족지와 우리말 TV가 있다고 강조하며, 한민족 문화 보급에 주한인협회의 중요한 역할도 언급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광복절이 조국 독립의 승리의 상징이며, 과거사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기억을 기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 한반도 해방의 날을 기념합니다. 1945년, 수만 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버려졌지만 1세대의 우리 선조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잘 정착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번 행사의 프로그램은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과 '하늘'타악기팀, 노래공연, 스포츠 경기, 공예 활동교실과 비빔밥, 국수 요리교실, 시식회와 씨름대회도 펼쳐졌다.

또한 국가적 특성을 가진 사진 구역과 사할린 한인의 역사를 주제로 한 사진 전시회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시민과 사할린 지역 방문객을 위해 한민족의 민족성을 담은 포토존이 준비



되어 흥미를 끈 가운데 광복절 축하의 분위기와 규모는 행사의 모든 손님들에게 민족 문화에 대한 생생한 인상과 감동을 남겼다.

(취재: 글/드미트리 포구다예브, 사진/이예식)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야외 광복절 행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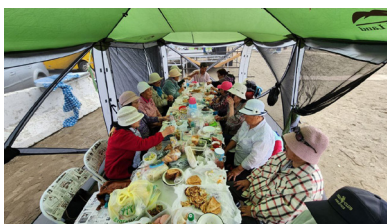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회장 림종환)는 지난 18일(일) 돌린스크 구역 스타로돕스코에 마을 개인 해변가에서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광복 79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 무대에는 시한인회 소속 합창당과 무용단, 그리고 협력 예술단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했고, 음악담당인 강팔용 씨가 직접 노래를 부른 가운데 명절 기분을 한껏 안겨주면서, 사람들은 이날 춤도 마음껏 추며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이야기 꽃을 피우고, 집에서 장만한 맛있는 요리를 서로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 주최 측에서 맛있는 우하(러시아식 생선탕)를장만해 함께 맛을 나눴다. 또한 여러 오락 게임과 스포츠 경기에도 참여했다.

림종환 회장에 따르면 이날 날씨도 좋아 야외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본사 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이모저모

<러시아> 전람회에서 수집된 90만 개 아동들의 소원, 우주로 보내

8월 15일(목) <러시아> 전시회에서 <꿈의 캡슐>행사 시 수집된 어린 방문객들의 꿈들을 바이코누르 우주선 발사장에서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보냈다.

러시아 89개 지역에서 온 <영재들의 우주탐사>기획의 우승자들인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의 염원을 담은 로켓 발사를 직접 지켜보았다.

어린이들의 소원은 <러시아의 영재들 - 기회들의 나라에> 1호 전시관에서 수집됐다. 전람회 기간 전시관을 방문하는 아동들은 소원을 적어내고, 이후 소원은 인공지능을 통해 시각화 되었고, 특수 전자시스템에 입력되었다. <꿈의 캡슐>행사는 전람회 주최 측과 공동으로 로스코스모스와 <영재들의 활동>이 함께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총 90만 개 이상 어린이들의 소원이 모아졌다.

<영재들의 우주탐사> 기획의 우승자들은 8월 13일에 바이코누르 우주기지국에 도착해 3일간 이들은 우주선 발사장의 작업을 알아보고, 8월 15일에는 <소유즈 -2.1a> 발사체를 통해 우주궤도로 발사되는 <프로그램 MS-28> 우주화물선의 발사를 지켜보았다.

지금 러시아 어린이들의 꿈은 별들에 더 가까워졌을 것이다. 바이코누르에서 아동들은 우주 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프로톤(양자)> 로켓 발사 설치-시험장과 <에너지> 지휘센터를 살펴보고, <가가린의 출발> 발사 단계와 최초 지구의 인공 위성 기념비를 방문했다.

또한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의 종합기념관을 찾아가 코롤료브와 가가린의 집을 살펴보고, 우주비행사들의 훈련센터 기지와 우주비행사들이 다니는 길을 방문했다. 어린이들의 소원은 <러시아> 전람회 작업 시작부터 수집돼 7월 8일에 종료됐다.

900 тысяч детских желаний, собранных на Выставке «Россия», отправили в космос
15 августа с космодрома Байконур на Междуна-

родную космическую станцию отправили мечты юных посетителей Выставки «Россия», собранные во время акции «Капсула мечта». Свидетелями пуска ракеты с заветными детскими желаниями стали молодые люди из всех 89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бедившие в проекте «Космическая экспедиция Первых».

Детские мечты собирали в Павильоне № 1 «Первые в России — стране возможностей». Во время экскурсии по павильону юные посетители Выставки загадывали желания, которые затем были визуализированы с помощью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занесены в специальную электронную систему. Акцию «Капсула мечта» провела Дирекция Выставки совместно с Роскосмосом и Движением Первых.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на площадке было собрано более 900 тысяч детских желаний.

Победители проекта «Космическая экспедиция Первых» прибыли на Байконур 13 августа.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ней ребята знакомилась с работой космодрома, а 15 августа они наблюдали запуском транспортного грузового корабля «Прогресс МС-28», выведенного на орбиту с помощью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Союз-2.1а». Теперь мечты маленьких жителей России будут ближе к звездам.

На Байконуре ребята побывали в Музее истории космодрома, осмотрели монтажно-испытательный корпус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Протон» и командный пункт «Энергия». Делегация также посетила стартовый комплекс «Гагаринский старт» и памятник первому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спутнику Земли. Молодые люди побывали в 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космодрома Байконур, осмотрели домики С. П. Королева и Ю. А. Гагарина, посетили филиал Центра подготовки космонавтов и Аллеи космонавтов.

Детские желания собирали с начала работы Выставки «Россия» и завершили 08 июля.

<극동에 러시아> 전람회 사할린에서 개최

8월 23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국내 극동 지역개발을 주제로 <국립역사박물관의 소장품들 속 극동의 러시아> 전람회가 개최된다고 문화.고문서부 논나 라브리크 장관이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대형 국립역사박물관과 함께 하는 대규모 전람회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지역 정부의 지원으로 개최된다. 전람회를 관람하는 방문객들은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러시아 국가의 극동지역으로 진출 과정과 과학 및 지역 개발의 경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전람회에 185개의 전시품들 대부분이 처음 전시되는데 이

전시품들은 고고학적 기념물, 귀금속, 고대 러시아의 그림, 화폐학, 무기 등의 부서에서 가져온 유물들로서 체호브 책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진품 유물들이다. 전람회는 멀티미디어와 전시물에 대한 설명으로 보완된다.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оется выставка «Росс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Экспозиция «Росс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коллекция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узея», посвященная освоению самых 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нашей страны, открое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23 августа.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в своем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Масштабная выставка с крупнейш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историческим музеем реализован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и знакомстве с экспонатами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ут узнать больше о продвижении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а восток с XVI по XX вв., о научном и экономическом освоении территорий.

В экспозиции 185 предметов,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которых представят в первый раз. Это образцы из отдела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драгметаллов, древнерусской живописи, нумизматики, оружия, а также подлинные реликвии из фондов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Выставку дополняют экспликациями и мультимедиа.

해변 스포츠 종목 축제에 사할린 주민 150명 이상 참가

코르사코브 지역 오흐츠크에 마을에서 진행된 해변 스포츠 종목 지역 축제에 사할린 주민 150명 이상이 참가했다.

'위야지' 해변에는 네웰스크,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온 참가자들이 모여 4개 스포츠 종목에서 경쟁을 치렀다. 사할린 지역에서 해변 스포츠 종목의 경기는 애호가들 사이에서 차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해변 삼보, 한국의 전통씨름, 해변 럭비, 해변 레슬링 등의 종목에서 경기가 치러졌다. 여러 연령별, 체급별에 따른 70여 명의 선수들이 모래 멍석 위에서 경쟁했다.

사할린 올림픽위원회 블라디슬라브 글루호브 회장은 "이 스포츠 종목은 공식 삼보 종목으로서 지금 해변 삼보에서 등급을 따거나 스포츠 장인의 칭호를 얻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8면에 계속)

사할린동포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5 모금 시작

KIN(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5' 제작을 위한 온라인 모금을 8월 16일(금)부터 시작하였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 동포들이 기일, 생일, 농사일, 손없는 날 등 일상생활을 음력으로 지내지만, 러시아에서 음력 달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작하기 시작했고, 올해로 열두 번째 제작이다.

달력? 그것도 벽걸이 달력이 요즘도 필요해?

휴대폰이나 온라인 캘린더로 일정을 관리하는 요즘, 달력을 만든다고 하면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달력에는 주로 무엇이 표시되어 있나요? 업무와 관련한 일정, 해야 할 일, 챙겨야 할 생일, 기념일 등이 있겠죠?

조금만 세대를 올라가면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는 가정도 꽤 많았습니다. 이걸 확인하려면 달력에 음력이 표기된 것이 필요했죠.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온 우리 민족으로서 음력이 농사짓기에 더 시기가 잘 맞아 음력을 사용해 왔고, 그에 따라 생일, 집 수리, 이사 등 일상생활도 음력을 기준으로 지내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음력 문화를 한반도에서 수천 km 떨어진 곳에서도 지키며 살아온 동포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들은 바로 사할린 동포입니다.

사할린 동포는 우리입니까?

요즘 라디오에서 들은 광고가 있습니다.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사회,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5% 이상이 넘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자는 공익 광고입니다. 그렇다면 나라 밖 동포들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사할린 동포는 일제 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간 이후 소련의 점령으로 1990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할린이라는 섬의 운명은 한반도의 운명과 궤를 같이 합니다. 1904년 시작된 러일전쟁, 일본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자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사할린섬은 1905년 북위 50도 이남을 일본이 차지하게 됩니다. 일본은 사할린을 개척하기 위하여 점차 조선인 노동자를 이용했고, 단순히 노동력 공급을 넘어 가족들까지 이주시켜 사할린에 정착시키려 했습니다.

강제동원 시기에 급격히 조선인들이 사할린에 갔고, 소련이 일본과 전쟁을 시작하며 남사할린은 8월 26일 소련이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사할린에 남겨진 일본 국적의 일본인과 조선인 중 일본인만 귀환 대상으로 정하며 조선인은 섬에 남게 되었고, 이후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으로 90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귀향길에 오르게 된 동포들입니다.

제헌국회에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갇힌 동포들을 구출해 달라는 청원이 채택될 만큼 사할린 동포의 귀환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문제였지만, 우리가 만날 수조차 없었던 냉전 시기에 그들의 문제는 이산가족의 문제에서 더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냉전시대에는 공산권 동포들의 사상을 의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사할린 동포 일부 중 일본인과 결혼한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헌신적 귀환운동을 했고,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렇듯 한반도의 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역사를 함께 한 사할린 동포도 우리가 '우리'로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12번째 새로고침을 하며

2004년 사할린 동포 문제를 제기한 '재외동포NGO대회'를 시작으로 사할린

실태조사를 위한 방문,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운동, 사할린 역사 복원을 위한 연구조사활동, 사할린 한인묘 조사 등 사할린 희망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0년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사할린 동포와 자녀들이 영주귀국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됐고, 사할린 한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사례들도 발굴하는 등 캠페인의 결실도 있었습니다.

2006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사할린을 방문하여 실태조사와 동포들과의 만남을 이어오며 사할린의 어르신들이 음력을 사용하는 분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은행 달력을 모아 가다가 사할린 동포들에게 새해맞이 작은 선물을 드리자는 취지로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달력에 음력과 절기를 넣고 한국의 국경일도 표기한 달력은 러시아어 설명도 넣어 차세대 동포들에게도 음력과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금 캠페인도 어느덧 12번째 모금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달력을 만드는 과정이자 사할린 동포를 알리는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동포의 역사에 대한 이해 확산이 올해도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매년 오르는 제작과 운송비용은 코로나 시기에 꺾충 뛰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기업 후원도 종료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의 시민이 보내는 작은 새해 선물! 내년에도 동포들의 손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않겠습니까?

모금함 상세정보

- 프로젝트팀 KIN(지구촌동포연대)
- 모금기간 2024. 08. 16 ~ 2024. 10. 16
- 사업기간 2024. 10. 19 ~ 2025. 01. 31
- 영수증 발급기관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지구촌동포연대 제공)

러시아-CIS 고려인 청년들 "재외동포청 '한국이해과정', 핏줄 알게 했다"

8개국 32명 대상 한달간 진행...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20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에서 '한국이해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7월 22일부터 진행된 이 과정에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8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년과 청소년 32명이 참가했다.

참가자 중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후손인 다니엘 오로자쿠노프(21세, 키르기스스탄) 씨는 "한국이해과정을 통해 나의 핏줄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나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자긍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태권도가 가장 재미있었고, 처음으로 한국 악기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키르기스스탄에 돌아가서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다"고 의지를 보였다.

원 카밀라(18세, 카자흐스탄) 씨는 "모든 프로그램이 흥미로웠고, 다양한 지역에서 온 고려인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태권도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MBC, 월미도와 같은 여러 장소를 방문해 다양한 체험을 한 기억도 오래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 공동 주최 측인 경인교대는 참가자들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 역사 교육과 국악 및 태권도, 한국 요리, K-팝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MBC, 국민속촌, 서울의 고궁 등 방문과 한국의 발전된 산업 현장 견학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수료식 후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방문해 동해와 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보고, 8월 23일부터 거주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기념해 '한국이해과정'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재외동포 청년과 청소년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맞아 본사는 사진공쿠르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사할린 한인 역사>,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사진.

- 출품수: 3점 이상
- 사진규격: 1,000x1600 픽셀의 JPG/JPEG 형식 파일 (5mb 이하), RGB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은 2024년 9월 27일. 우수 작품은 시상식에서 전시. 사진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직위원회

ОБЪЯВЛЯЕМ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э коре синмун"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Тема "Моя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темы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Требования к работам: от 3-х фото, формат JPG/JPEG, размер 1000x1600 пикселей, объем не более 5 МБ, цвет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RGB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Лучшие работы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газете, а также выставлены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27 сентября 2024 г. .

Оргкомитет

새고려신문 창간 75 주년 기념

2024 한국어 및 러시아어 문예공쿠르 공모 연장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공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한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공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ов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ЮСМООК отметила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на морском побережь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18 августа провела праздни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ённое Дн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Праздник состоялся в посёлке Стародубское Дол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частного пляжа,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й компанией "Праздник плюс".



Почти безветренная погода, летнее тепло, настрой и подготовка организаторов - все содействовало успешному проведению праздника.

Несмотря на дальнейшее расстояние, приехало много гостей, в том числе, сахалинские репатрианты, приехавшие на побывку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ыли поздравления, выступления творческих групп наших партнёров, а также хора и ансамбл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анца ЮСМООК. Прош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корейских блюд, веселые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Праздничный настрой создала музыка от Кан Пал Ен. Люди танцевали до упаду, встречали давних знакомых, общались, угощали друг друга домашними вкусностями и покупным мороженым. От организаторов бесплатное угощение – фирменная душистая уха.

Праздник удался.

Председатель ЮСМООК
Лим Ден Хван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ЮСМОО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ДКМ побывали на Сахалине

С 15 по 18 августа по приглашению Региональной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МООСК) на Сахалине побы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НО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в городе Москве» (МДКМ) Анна Ким, Денис Нам, И Сун Чер во главе с директором Пай Павлом.



Они прилетели с целью проведения цикла лекций о важности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ы, об эффективности построения команды. Ребята поделились своим опытом в проведении мероприятий, рассказали о своих нереально крутых проектах, а также провели воркшоп на тему создания проекта с нуля. Также РМООСК и МДКМ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о присуждении РМООСК статус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АНО «МДКМ» в рамках проведения отборочного тура для участия в самом крупном в стране К-POP ивента "Confedance". Ребята посетили также редакцию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 «Урималъ бансон» КТВ, где дали интервью.

17 авгус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ДК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празднич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освященном 79-ой годовщин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сков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уехали, переполненные впечатлениями, с надеждой на долгосроч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ахалинцами.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РМООСК).

Праздник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ошел на Сахалине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17-го августа,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о празднование 79-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стал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есмотря на пасмурную погоду, многие жители и гости города пришли в парк им. Ю.А. Гагарина, чтобы своими глазами увидеть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ставший традиционным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рытие торжества началось с совместн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школы «Этнос» и 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Торнадо». На открытии праздника прозвучала композиция ансамбля барабанщиков «Этнос», после чего под гул ударных состоялось показатель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тхэквондистов из спортивных клубов «Торнадо» и «Единство», которы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зрителям навык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оевого искусства.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 важная дата для многих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араллельно ожесточенные бои шли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которые долгое время находились во власти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 Сегодня мы отмечаем 79-ю годовщину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Эти события происходили в период заверше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это же время был освобожден Южный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была образован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ее современных границах. Сегодня – это наш общий дом! И мы с вами одна семь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толь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сть корейское телевидение,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и сохраняется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К словам благодарности от губернатора такж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и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Надсаддин.

-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уникальна. Потому что многие из вас обрели здесь вторую родину и сохранили свою идентичность. Наш город многонационален, но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амая многочисленная и самая сплоченная,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Надсаддин.

К собравшимся также обратилась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Ок. Она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является символом побед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и чтит память тех семей, которые оказались разлучены из-за минувших событий.

- Сегодня мы отмечаем самый важный для нас праздник -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далеком 1945 году тысячи корейцы были брошены на Сахалине, но наши предки, первые поколения, сделали все, чтобы мы здесь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гражданами большой страны. - отметила глав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аздника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гостей насыщ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включившую в себя потрясающие музыкальные номера, захватывающие выступления спортсменов традицион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аллиграфии хангыль, дегустацию традицион-



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блюд и состязаний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Го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радовали концертные номера ДШИ «Этнос»,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Ханиль», К-поп коллектива «Миро», танцев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Ариран», выступления солистов-вокалистов, а также участников молодеж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История страны – моя история».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аллиграфии и дегустационные площадки традиционных блюд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Также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е могли получить ценные призы, приняв участие в 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ях.

Кроме того,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функционировали фотозона с национальной атрибутикой и фото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ная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тмосфера и масштаб праздновани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печатлили, оставили яркие впечатления и восхищ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ой у каждого гостя праздника.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Фото: ЛИ Е СИКА

В августе 1937г. было принят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21 августа 1937 года Совнарком СССР и ЦК ВКП(б) принял постановление № 1428-326сс за подписями Сталина и Молотова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30-х гг. XX века совет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пришло к решению, что корейцы на совет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это питательная среда для японского шпионажа в регионе и что их пора выселять. Еще в начале 1936 года Политбюро ЦК ВКП(б) принял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ах ДВК»,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НКВД разрешалось выселять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порядке из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бывших коммунистов, изгнанных из партии: среди перечисляемых категорий

лиц - вслед за белогвардейцами и перед троцкистами и зиновьевцами шли корейцы. В апреле 1937 года газета «Правда» выступила с разоблачениями японского шпионаж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агентами японцев, оказывается, были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корейцы. В августе 1937 года краевой НКВД возглавил Генрих Люшков, будущий перебежчик в Японию. По существу, «в кармане» он привез выше-названное постановление СНК и ЦК ВКП(б) от 21 августа 1937 года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ее завершение всей операции к 1 января 1938 года. Любопытно, что один из пунктов постановления гласил: «не чинить препятствия переселенным

корейцам к выезду при желании за границу».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ыли депортированы 11 807 человек, возможно, из числа стоящих под прямым подозрением о шпионаже. В целом же за сентябрь было отправлено 74 500 корейцев из Спасска, Посыета, Гродеково, Биробиджана и других мест.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 1937 года был расширен круг районов, подлежащих очистке от корейцев: в их число вошли Владивосток, Бурят-Монгольская АССР, Чит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Уже к 25 октября 1937 года 124 эшелонами было выселено 171 781 человек (оставалось в крае - и то ненадолго - всего около 700 корейцев). Депортация корейцев проходила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однако отдельные груп-



пы переселенцев попадали и в пределы европейской части России, например, в Сталинградскую область (Астраханский округ).

<https://t.me/saramkor>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оссия отправляет в КНДР 447 коз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ветеринарному и фитосанитарному надзору России (Россельхознадзор) одобрила отправку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447 коз. После ветеринарного осмотра 432 самки и 15 самцов были передан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торговой компании.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на сайте Россельхознадзора, животные будут доставлены по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из Ле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России в приграничны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город Расон.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поставка коз направлена на обеспече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детей молочными продук-тами в условиях хронической нехватк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9 авгус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ообщили, что в некоторых районах города Нампхо на запад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строены козы фермы большой мощности. Согласно совместному отчёту Детского фонда ООН,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Всемирного бан-ка, в 2022 году каждый шест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ребёнок в возрасте до пяти лет страдал от задержки роста из-за недоедания.

Число заражённых COVID-19 может достичь 350 тысяч человек

Число заражённых COVID-19 может достичь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350 тысяч человек,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пику, зафиксированному во время прошлогодней летней волн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9 августа в Кор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е планируют повышать уровень опасности COVID-19. Пока в стране недостаточно средств для борьбы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но к концу месяца будут соз-даны запасы необходимых медикаментов. В аптеки посту-пят средства для лечения 260 тысяч пациентов с COVID-19, а также более 5 миллионов наборов для тестирования на коронавирусе.

РК и Китай возобновляют программу молодёжных обменов

19 август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молодёжная делегация в со-ставе 50 человек отправилась в Китай в рамках двусторон-ней программы обменов, которая возобновилась после пя-ти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вызванного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ходе шестидневной поездк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сетят Пекин и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регион Цинха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Ким Хон Гюн, выступая на церемонии запуска программы. РК и Китай – близкие соседи и важные партнёры. Сеул на-мерен и впредь разви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 Пекином на основе взаимного уважения и общих интересов,- добавил Ким Хон Гюн.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РК планирует принять китайскую молодёжную делегацию.

Сериал «Семья и романс» возглавил чарт Netflix не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ериал «Семья и романс» поднялся н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чарте Netflix для сериалов не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Романтическая комедия телеканала JTBC с Чи Чжин Хи и Ким Чжи Су в главных ролях собрала в период с 12 по 18 август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2 млн 600 тыс. просмотров. Се-риал вошёл в десятку лучших в 37 странах и регионах мира, включая Бразилию, Чили, Мексику, Японию и Гонконг. Первая серия была показана 10 августа. 12-серийный сериал расска-зывает историю отца, который возвращается к своей семье через 10 ле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н оставил её из-за финансового банкротства. В первую десятку чарта Netflix вошли ещё тр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ериала. Романтическая комедия канала tvN «Сын маминой подруги» занял пятое место, сериал Netflix о выживании «The Influence» занял шестое место, а сериал ка-нала JTBC «Мисс ночь и день» занял седьмое место.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 один из вариантов увеличения населения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население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неуклонно сокращается,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может стать вариантом увелич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Об этом заявила в радиоинтервью KBS старший советник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о проблеме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Ю Хе Ми. Она высказалась за рассмотрения возможности приёма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для увелич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в условиях надвигающегося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Коэффициент рождаемости, или среднее число детей, которое, как ожидается, родит женщина за всю её жизнь, достиг в Р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екордно низко-го уровня 0,72.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стабильно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без иммиграции необходимы 2,1 рождения на каждую женщину. Если текущая тенденция сохранится,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население страны сократится примерно на 30%, а численность пожилых превысит численность работающих. Ю Хе Ми отметила, что стоимость пилотной программы найма домашних помощниц с Филиппин высока из-за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рименения к ним системы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Она призвала принять меры, чтобы сделать программу более доступной для обычных домохо-зяйств.

RKI

В 79-ю годовщину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вспоминаем подвиги предков

Дорогие коре-сарам!

15 августа, в 79-ю годовщину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광복절, мы вспоминаем подвиги наших предков, сражавшихся за свободу и достоинство своего народа.

Среди них особое место занимает генерал Хон БомДо, ставший символом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Для коре-сарам,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генерал Хон БомДо — это не просто историческая фи-гура. Это наш проводник, воплощающий в себе силу духа и непреклонность перед лицом трудностей. Его жизнь и деятель-ность вдохновляют нас сохранять свою идентичность и вносить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одины предков.

14 августа активисты АКРК с особым почтением посетили могилу Хон Бом До в Тэджоне, чтобы отдать дань уважения этому великому герою. Перенос праха генерала из Казахстана в Корею стал символом воз-вращения домой для всех нас.

Сегодня, как и тогда, когда наши предки боролись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свобода — это не только дар, но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 знак соли-дарности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У Вонсиком и Мемориальным Обществом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глава АКРК Жанна Тен не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официальной церемонии.



Мы не можем молчать, когда искажают историю и принижают подвиг тех, кто отдал свою жизнь за бу-дущее страны.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среди членов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есть потомк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торые продолжают нести факел свободы 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Этот день 광복절 — не просто праздник, это на-поминание о том, что свобода требует постоянной за-щиты и уважения к нашему историческому наследию. Пусть этот день станет символом единства и гордости за наше великое наследие.

С уважением,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сточник: АКРК 대한고려인협회 Ассоциация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бит рекорд по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тропических ночей

Лето в Корее традиционно считается, пожалуй, самым неприятным сезоном - сначала здесь насту-пает долгий период муссонных дождей, а затем им на смену приходит испепеляющая жара, которая из-за высокой влажности переносится очень тяже-ло.

Однако нынешнее лето стало выдающимся. В Се-уле и ряде других крупных городов был установлен рекорд по длительности так называемых тропических ночей, когда температура воздуха не опускается ниже 25 градус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Управления метео-ролог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еуле тропические ночи фиксируются непрерывно уже в течение 30 дней. Это является абсолютным рекордом за всю 118-летнюю историю метеонаблюдений. Схожие рекорды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и в других крупных мегаполисах страны, где от жары не спасает даже море. Так, в Инчхоне ано-мально жаркие ночи длятся уже 28 дней, а в Пусане - 26.

Днем же температура стабильно держится на уров-не выше 30 градусов. Так, в 11 часов утра 20 августа

термометры в Сеуле показывали +33,5, в Инчхоне - +33,9, в Чонджу - 34,5, в Пусане - 31,3 и в Чечжу - 33,9 градуса. Днем на улице находиться тяжело, по всей стране уже который день подряд объявляются "специ-альные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об аномально жаркой погоде", когда жителям советуют пить больше воды, находить-ся в тени и,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не выходить на открытый воздух. Многие из них пытаются спрятаться от жары в зданиях и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с работающими кондиционерами.

Эксперты прогнозируют, что, возможно, уже в ночь на 21 августа череда тропических ночей в Се-уле прервется.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оказался в зоне влияния тайфуна, а потому в стране ожидаются сильные дожди, которые несколько снизят темпера-туру. Однако уже через два дня жаркие ночи вернут-ся. Обычно в Корее к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августа жара начинает спадать, но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высокая тем-пература продолжает держаться и, согласно прогно-зам синоптиков, может продлиться как минимум до конца месяц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Сеульская неделя умной жизни

Сеул, 18 августа – ИА РУСКО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еула заявило, что в октябре запустит междуна-родную техническую выставку с амбициозной це-лью превратить мероприятие в платформу, подоб-ную влияюще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выставке CES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Сеульская неделя умной жизни (SLW), которая откроется 10 октября в торговом центре COEX mall на юге Сеула, предложит плат-форму, на которой города по всему миру смогут со-браться, чтобы поделитьс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и тен-денциями и идеями и продвигать инновационные компании по всему миру. В январе, во время свое-го визита на CES 2024 в Лас-Вегасе, мэр Сеула О Се Хун пообещал превратить SLW в мероприятие, сравнимое с CES,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Программы будут состоять из выставок, цере-монии вручения премии Seoul smart city award, а такж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орумов и конференций. Выставочный зал будет оборудован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участники смогл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ередовым образом жизни в городе будущег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ематикой. На выставк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продукты компаний в таких секторах, как мобиль-ность,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красота и робототехника. Также состоятся различ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форумы, в том числе Форум мэров, Глобальный форум директоров по цифровым технологиям и конференция для обмена достижениями проекта «Умный город».

Лапша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главный продукт экспорта

Сеул, 19 августа – ИА РУСКОР. Экспорт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из Южной Кореи вырос на 9,2 процента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за первые семь месяцев этого года, чему способствовал резкий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и продуктов из обработанного риса. Экспортные поставки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состави-ли 5,67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за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июл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5,18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го-дом ранее,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разбивке по продуктам экспорт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за этот период вырос на 34 процента и достиг 699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а снековых продуктов — на 14,7 процента, до 424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Эк-спорт продуктов из переработанного риса также вырос на 45,7 процента до 165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на фоне растущей популярности готового к употреблению риса и замороженных гимбап, или рисовых рулетов с морскими водорослями.

Экспорт в США вырос на 23 процента до 886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а в Китай — на 5,9 процента до 837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ъяснило общий рост ди-версификацией экспортных продуктов, включая веганские пельмени и кимчи, которые можно консервировать при комнатной температур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со-хранить динамику за счет завершения маркетинговых кампаний для K-Food,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рубежных логистических центров и поиска импортеров и розничных продавцов», — заяв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Жилые микрорайоны, технопарки, объездная дорога: первые итоги реализации мастер-пла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еализуется долгосрочный план комплексно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до 2030 года, одобренный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этом году в числе ключевых проектов – начал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вартала» и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старт модерниз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орта, сдача первых очередей промышленных парков, реконструкция маяка Анива.

–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поручил разработать 25 мастер-пла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ородов. Появилась уникальн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строить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комфортной жизни люд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единственного в нашей стран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десь создаются рабочие места, строятся новые жилые микрорайоны, соц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и промышл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создается передовой кампус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несколько промышленных парков. Нужно сделать город ещё более удобным для тех, кто в нём живет, и для тех, кто приезжает сюда работать и отдыхать,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Реализация мастер-пла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уже началась. В первый пояс агломерации, кроме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входит город-порт Корсаков. Благодаря мастер-плану оптимизируют жилую, транспортную и социаль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число рабочих мест вырастет в 1,5 раза, а жилой фонд существенно расширится.

– Мастер-план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мы разрабатывали совместно с жителями и бизнесом. Поэтому он учитывает не только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е решения, но и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на долгие годы вперед и конкурент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нашей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агломерация – это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ий хаб. Мы запустили самый современны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аэровокзал, строим всепогодную «взлётку». В этом году приступаем к долгожданн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орта, который станет важной точкой на Северном морском пути. Первый каботажный рейс ожидаем уж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Такж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это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в центре которого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Мы создаем красивые жилые микрорайоны,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олимпийского уровня»,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активно создаются жилые комплексы и целые микрорайоны с современным культурным обликом. Вместе с жилыми домами возводятся и социаль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 школы, детские сады, магазины, кафе. Первые новоселы уже заселились в новый ЖК «Уют парк»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другом конце города застраивается ЖК «Горизонт». Всего в ближайшей перспективе создадут 12 жилых комплексов – к 2030 году новоселье должны отметить более 32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 в Корсакове летом этого года дали старт строительству ЖК «Сердце Сахалина». Первый этап – 1035 квартир – должны сдать до конца 2028 года.

В городе появляются красивые и современ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завершаются очередные этап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ботанического сада и набережной реки Рогатка. Откроется южная входная группа на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и сквер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на улице Пограничной. 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оявится бульвар студентов за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ом.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развитию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пустили самый современны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аэровокз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способный принимать до 5 млн пассажиров в год. И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сепогодной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которую должны сдать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озрастает роль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которая интегрируется в систему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Благодаря созданию транспортно-пересадочных узлов (ТПУ) запущен городской экспресс. Пассажиры могут быстро и с комфортом на поезде доехать на другой конец города, а после бесплатно пересесть с поезда на автобусный транспорт.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троят объездную дорогу,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убрать грузовой транспорт из центра города и освободить более 200 га земли для созда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дел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округ нов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артерии будет создаваться промышлен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Уже запуще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со складскими помещениями класса А. Их оборудуют совреме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для обработки, перевозки, хранения и учета грузов.

По словам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КРДВ) по развитию территорий Андрея Коновалова: «Среди ключевых ме-

роприятий мастер-пла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 развитие существующей транспортной сети, в том числе расширение парка пассажирских вагонов. Мастер-план предполагает объединени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и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Корсаков в еди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е и рекреацио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на фундаменте развит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сети. Оба города находятся в юж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 плотно населенной, с комфортным климатом. Здесь расположены жилые районы, торговые зоны различного типа, промышл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е объекты. Развити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сообщения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целостного транспортного каркаса агломерации, на обеспечение стабильного пассажирского потока между двумя ключевыми городами области, на своевременное и качественное выполнение всех мероприятий долгосрочного комплексного плана развития агломерации».

В 2024 году будут сданы первые очереди нефтегазов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и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ов. Первый позволит локализовать сервисы для ведущих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А второй – повысит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вощами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благодаря современным хранилищам. Также резиденты агропарка с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переработкой молока, мяса, рыбы и овощей, производить консервы, готовые блюда и кондитерские изделия.

Разви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повышению квалификации островных кадров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создание передового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На проспекте Победы с опережением графика возводят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на 1500 человек, а н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 проспекте – научны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общей площадью свыше 8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с совреме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чными аудиториями и лабораториями.

Как отмети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РДВ по социальному развитию Гасан Гасанбалаев: «Создание новог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суперкампуса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ом и комплексом мер,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программой развития вузов «Приоритет 2030.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план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его трансформацию в центр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решения задач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ряду направлений. В их числе есть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это водородные и «зелёные» технологии, экологические и климатические проекты. Лаборатории и учебные аудитории кампуса СахГУ строя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 они входят в число объектов мастер-плана развит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РДВ оказывает содействие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по всем эт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ахалинТех станет ведущим вузом страны по шельфовым проектам, новой энергетике,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биотехнологиям и экономике океана. Не дожидаясь оконча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епрофилирую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создают современные лаборатории для студентов на базе технопарков, привлекают перспективных молодых ученых.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ампуса является импульсом к развитию прилегающих город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Например, уже сегодня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построен бассейн олимпийского уровня.

Ещё одним ключом к развитию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станет модернизац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орта. Реконструкция гидротехнических сооружений уже стартовала в этом году. В перспективе здесь появятся рыбоб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и логистические мощности, центр дистрибуции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и крупный контейнерный терминал. Все это сделает порт важным пунктом на Северном-морском пути и в странах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объёмы грузоперевозок, а также создаст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в регионе.

В этом году приступили к реализации еще одного важного и давнего вопроса – начал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маяка Анива. Оригинальное и сложное техническое сооружение – это одно из главных мест притяж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туристов и гостей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Отметим,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мастер-планов 25 город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выполнение 875 мероприятий общей стоимостью более 4,4 трлн рублей. Актуа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последние новости о развитии городов ДФО собрана на сайте 25городов.рф.

Центр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веден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Центра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Волна». Новый спортивный объект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овершенный комплекс для тренировок, подготовки и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по спортивному плаванию, водному поло, синхронному плаванию, прыжкам в воду и адаптивному плаванию.

Здание Центр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два бассейна. Первый, 50-метровый, оборудован передвижной перегородкой, а 25-метровый оснащен прыжковой ванной и вышками для прыжков в воду.

– Создание Центра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Волна» – это большой шаг в развитии спор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Мы постарались сделать максимально совре-

менный спортивный объект, который будет решать много задач.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оборудованы и укомплектованы тренажерный, батутный и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залы.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в проектировании уделялось не только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ому процессу спортсменов, но и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ому. Поэтому здесь создан медицинский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й центр, –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ём Подшивалов.

Объект построен на средства ПАО «Газпром» в рамках заключенных между компанией и регионом соглашений о развитии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 инициативой возвести современный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выступ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елось под личным контролем главы региона. Он неоднократно выезжал на стройплощадку и подчеркивал значение Центра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и для развития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регионе.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развивается быстрыми темпами, ещё пару лет назад мы и представить не могли, что будем заниматься в таком огромном, супер-новейшем во всех смыслах здании, – отметил тренер спортшколы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Алексей Обухов. – Я верю в то, что с открытием нового Центра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мастерство наших спортсменов станет выше. А Сахалин непременно станет спортивным центром для всей России. В будущем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манды приезжали для сборов и соревнований именно сюда. Это станет шагом к развитию всех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на острове!

В Центре установлена новейшая система хронометража Swiss Timing и система мультимедий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рямых трансляций.

– Когда я узнал, что у нас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вается такой масштабный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честно говоря, не сразу поверил. Думал долго будут строить и уж тем более, не задумывался, что буду заниматься и плавать в этом шикарном бассейне. Таких условий для пловцов я правда никогда не видел. Радуют большие просторные помещения, всё красивое и новое.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который добил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этого бассейна! Хочется уже поскорее опробовать здесь воду на ближайш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С таким бассейном – грех не стать мастером спорта, – поделился радостью чемпион област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плаванию Богдан Бикбаев.

С 6 по 7 сентября, в преддверии начала работы масштабного объекта, пройдет грандиозная шоу-программа театра на воде Марии Киселевой. Он не имеет аналогов в мире, а участие в нём принимают звёзды синхронного плавания, прыжков в воду и акробатики, а также артисты балета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актёры.

Главными лицами станут олимпийская чемпионка и чемпионка мира по синхронному плаванию Мария Шурочкина, трехкратная олимпийская чемпионка Светлана Колесниченко, заслуженный мастер спорта по прыжкам в воду Константин Ханбеков, двукратная чемпионка мира по синхронному плаванию Майя Дорошко, четырехкратная чемпионка мира Варвара Субботина, олимпийская чемпионка Елена Прокофьева, пятикратная чемпионка мира Дарина Валитова и мастер спор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ласса по прыжкам в воду Сергей Гольцев.

120 школьников будут обучаться цирковому искусству на Сахалине

С нов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ткрываются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Именные педагоги будут обучать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цирковому искусству.

На репетиционной базе «Репка III»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Есенина, 1а) создается цирковая школа. Для работы пригласили восемь педагогов – выпускников ведущих цирковых школ России. Ребята будут обучать по восьми направлениям циркового искусства – акробатика, пластика, эквилибристика, жонглирование, воздушная гимнастика, клоунада, скакалка, хореография.

Обучение рассчитано на пять лет.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в школу планируется зачислить 120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в возрасте от 6 до 18 лет. Информация о старте набора будет размещена на сайте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после 25 августа.

Школьники будут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вои таланты на концертах, будут украшать областные и всероссий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 желании школьники смогут продолжить свою карьеру и стать артистами цирка.

– Мы хотим быть культурной столиц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этому развиваем все виды искус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цирк. Это новая форм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Школьники будут учиться у мастеров высокого класса и выступать с ними на сцене. Не все станут артистами цирка в дальнейшем, но пройдут хорошую школу, сочетающую в себе как спорт, так и актерское мастерство,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Частью нового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екта станет также цирковое шоу «Мы пробуждаем солнце». В программе – воздушные гимнасты, эквилибристи, жонглеры, акробаты, канатоходцы, клоуны, аниматоры.

– На сцену выйдут звёзды российского цирка и артисты эстрады, лауреаты и призер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естивалей и конкурсов, а также спортсменки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6-8 СЕНТЯБРЯ 2024 Г. - ВЫБОРЫ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8 ПРИХОДИТЕ НА ВЫБОРЫ
ГУБЕРНАТОРА
сентябр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РАТИТЬСЯ
К П. Г. АШИХМИНУ,
ЗАДАТЬ ВОПРОС,
УЗНАТЬ О ПРОГРАММЕ
КАНДИДАТА
В ГУБЕРНАТОРЫ ОТ КПРОФ
МОЖНО В КАНАЛЕ -

АШИХМИН С КРАСНОЙ строки
@Pavel_Ashikhmin_KPRF



АШИХМИН
Павел Георгиевич
Богатств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
в интересах жителей!

이모저모

(2면의 계속)

해변 럭비 종목에서는 아마추어 성인 3팀이 우승을 위해 치열하게 경기를 치렀는데 이 경기는 평소 경기와는 달리 경기장이 더 작으며, 선수들 교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몇 가지 기술적 요소들을 배제하는 가운데 치러졌다. 이 행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통계학'국민기획 <스포츠는 생활의 표준>이라는 연방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Более 150 сахалинцев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фестивале пляж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Свыше 150 сахалинцев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открыт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естиваля пляж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который прошел селе Охотско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На пляже «Вояж» конкурировали в четырех видах спорта участники из Невельска, Корсакова, Холмс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ляжные виды спорта набирают популярность среди любителей состязаний.

На фестивале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пляжном самбо,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е на поясах ссирым, пляжном регби и пляжной борьбе. На «песочное татами» вышли около 70 борцов в нескольких возрастных и весах.

«Ну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этот вид спорта стал официальной дисциплиной самбо, поэтому теперь в пляжном самбо можно выполнять разряды или даже звания мастеров спорта», -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остров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Владислав Глухов.

В пляжном регби за звание победителя боролись три взрослые команды любителей. От обычного оно отличается меньшей игровой площадкой, неограничен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замен и отсутствием некоторых технических элементов.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по федер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Спорт - норма жизни» нац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ахалин 주민들, 사기꾼들에게 1천만 루블리 이체

사기꾼에게 속은 сахалин 주민들이 1천만 루블리를 잃었다고 сахалин주 러시아 내무국이 전했다. 올해 7월 초 고르노자워д스크에 거주하는 57세의 남성은 관심을 갖는 투자 광고를 접하면서 이에 제시된 링크를 따라 이동해 설문을 작성하고 질문에 답했다.

자정쯤 이 남성의 메신저로 '금융분석가'를 사칭한 자가 전화를 해서 피해자가 거래소에서 각종 금융거래를 실행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피해남성이 몇 차례 돈을 이체하면서 그가 피해를 당한 금액은 7백73만8천 루블리가 넘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의 19세의 여성이 상당한 금액을 잃었다. 메신저를 통해 이 여성은 채용 광고를 보고 지원서를 보냈다. 이후 전화로 발신자가 판매직 일자리를 제안하여 여성은 이를 수락했다. 급여와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여성은 직불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후 전화한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하며, 수익과 물품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피해 여성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을 해야 했고,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발신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피해를 입은 금액은 1백4만6천 루블리에 달했다.

сахалин의 59세의 여성은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발신자는 이 여성에게 새로운 의료보험의 필수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보험 신청자는 SMS로 자신의 코드를 제공해야 했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 피해여성이 '고스우슬 루기' 사이트의 개인계정에 로그인하려 했지만 되지 않았다.

이후 기술지원 전문가로 사칭한 사람이 연락을 해서 그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이로 인해 그녀의 은행 계좌가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피해여성은 이 사기꾼의 지시에 따라 제시한 계좌로 81만7천 루블리를 이체했는데 그중 12만7천 루블리는 그녀의 저축금이었고, 44만 루블리는 대출자금이며,

25만 루블리는 지인에게서 빌린 돈이었다.

Сахалинцы пополнили счета мошенников на 10 млн рублей

Сахалинцы, поверив мошенникам, лишились в сумме 10 млн рублей.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57-летний житель Горнозаводска в начале июля этого года наткнулся на рекламу инвестирования, которая его заинтересовала. Он перешел по ссылке, заполнил анкету и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ы в опроснике.

«Около полуночи в мессенджере ему поступил звонок от «финансового аналитика», который помогал совершать разного рода финансовые сделки на биржах», - отметили в сообщении. Потерпевший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еречислил деньги. Сумма ущерба превысила 7 млн 738 тысяч рублей.

Еще одной немаленькой суммы лишилась 19-летняя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мессенджере девушка увидела объявление о работе и отправила заявку. Ей перезвонили и предложили трудиться в сфере продаж. Она приняла предложение.

Чтобы получать зарплату и бонусы девушке нужно было оформить дебетовую карту. Далее, действуя по инструкции звонившего, якобы для увеличения дохода и товарооборота, потерпевшей нужно было оформить кредиты на свое имя, заняла деньги у друзей и знакомых и перевела их на продиктованные ей счета. Сумма ущерба составила почти 1 млн 046 тысяч рублей.

59-летняя сахалинка начала общаться с неизвестным, который сказал ей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лучения нового страхов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полиса. Заявительнице нужно было назвать код из СМС. После передачи данных, девушка не смогла зайти в личный кабинет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и». Затем с ней связались лже-специалисты технической поддержки и сказали, что произошла утечка информации, ввиду чего ее банковские счета под угрозой. Следуя указаниям аферистов, заявительница перевела на указанный ей счет 817 тысяч рублей, 127 тысяч из которых были личными сбережениями, 440 тысяч - кредит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а 250 тысяч ей одолжили знакомые.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장기간 새고려신문을 후원하신 '폴리그랜드'회사 대표이사 서(세가이) 예브게니의 동생이신 서 에른스트 씨가 2024년 8월 19일 57세를 일기로 중환 끝에 별세하였음을 부고하고, 비애에 젖은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Коллекти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ыражает глубокие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генеральному директору ООО «Полигранд» Шегай Евгению Дмитриевичу в связи с кончиной после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й болезни брата Шегай Эрнста Демановича.

Скорбим вместе с Вами.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РАССРОЧКА

Реклам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